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이 예술활동에 미치는 영향

박순자(숙명여자대학교 무용과)
김수진(숙명여자대학교 무용학과 박사)

논문초록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이 예술활동에 미치는 영향

오늘날의 무용예술은 인간에 대한 존중을 잃어가는 무용문화가 창출되고, 정신적으로나 지성적으로 답보의 상황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무용예술은 춤추기와 공연하기라는 행위에서 벗어나 무용의 존재 및 정체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을 통해 습득되어진 기독교적 예술관이 예술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적연구로서 8명의 참여대상자들을 심층면담 하였다. 이에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은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에 관계없이 긍정적이었으며, 일반적인 예술론을 수강한 연구 참여자의 경우 양정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되어 온 실기 위주의 무용적 환경으로 인하여 특별히 기억하거나, 자신의 예술론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들은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이 인간은 곧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존재론적 본질에 맞추어 창조물로서의, 창작자로서의 인간에 존재에 대하여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물질적 가치기준에서 정신적 가치기준으로 그 중에서도 선행의 가치 추구, 진정성 있는 무용예술, 책임감, 인간에 대한 이해로 예술에 대한 가치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습득된 기독교적 예술관을 통하여 연구의 참여자들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소통을 소망하며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예술활동과 교육 활동에서 포용하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과 이를 삶에서부터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일반교과과정으로서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에 대한 인식은 연구 참여자 대다수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나 절대적인 기독교 신앙의 강요가 아닌 보편적인 종교로서의 인식과 학문적 관점에서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교육자가 가치 중립적 입장에서 이질감 없이 교육한다면 기독교적 예술론의 일반교과과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하여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은 예술활동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기독교, 예술론, 무용, 예술활동, 기독교적 예술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사회에서 무용예술 교육은 그 시작점이 되었던 일제 식민지 시기에 체육의 한 요소로서 체육 교육적 성격에 집중되어 발전하였다. 1963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무용학과가 최초로 개설되었으나 역시 체육대학 내에 설립되면서 무용예술이 정신세계와 연관된 하나의 예술적 학문이 아닌 단순히 움직임을 강조한 체육적 성향에서 성장하게 되었다(박순자 2013: 98). 1960년대 대학무용교육이 실시된 이후에도 무용예술은 실기 측면에서의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질적 성장은 더디게 진행(박순자, 2013: 101)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무용계에서 무용학의 부재에 대한 문제제기는 1994년 첫 연구¹⁾가 발표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으며 이는 무용학은 무용예술이라는 멋진 집을 짓기 위해 탄탄한 기초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김수진 2015: 55). 왜냐하면 예술은 자기가 경험한 느낌을 의식적으로 일정한 외면적 부호로 타인에게 전하고, 타인은 이 느낌에 감염되어 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립되는 인간의 작업(tolstoy, 1988: 72)이기 때문이다. 즉 일정한 외면적인 부호인 신체를 통해 타인에게 정신을 표현하고 이를 감염시켜 향유자에게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무용예술이며, 이제 무용예술을 통하여 무엇을 감염시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무용가 스스로가 묻고 깨달아 알며, 사회에 끼치게 될 영향력과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

오늘날 무용예술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소통의 어려움, 난해함, 외면적 아름다움에 치중함으로 인간의 본질이나 가치, 존엄성 보다는 인간을 하나의 상품으로 평가하고, 신체 존중보다는 신체노출로 자극성을 더하여 왜곡된 신체상을 주입하거나, 자극적인 성문화를 표현하고, 표절시비, 외설시비 등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을 잃어가는 무용문화를 창출하기도 하였다(김수진 2015: 1). 나아가 공연예술 뿐 아니라 무용계 전반에 대하여 김채현은 무용예술이 정신적으로나 지성적으로 담보 상황을 거듭함으로서 눈과 감각을 만족시키는 오락 정도에 머물게 될 정도로 심각한 ‘춤 지성’의 공백이나 후퇴의 상황(김채현 외, 2012: 24)이라고 할 만큼 오늘날의 무용예술은 고립되거나 발전의 속도가 극히 미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제 무용예술은 춤추기, 공연하기라는 행위에서 벗어나 무용의 존재 및 정체성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박순자 2013: 94) 해야 할 때이며, 외형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인간의 정신과 정서, 지성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책임감(김수진 2015: 56)을 가진 무용예술가의 자세가 요구되는 때에 이르렀다.

1990년대 이후부터 실기진공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교과과정이 개설되었지만 여전히 다양한 영역에 대한 교과개발은 부족하며 일반 기본교과에 대한 지식과 경험에 관한 교육 역시 부족하다는(서숙희, 이윤혜 2012) 것과 무용이론과 관련된 수업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김소영·한준영 2014: 12)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2014년 연구된 김소영·한준영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44개 대학의 과목구성 비율은 이론과목이 28.9% 실기/실습과목의 비율은 71.1%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무용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무용교과에서 실기가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가 당연하다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론과목 중에서도 예술론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예술적 철학과 사상을 가지지 못한 채 무용기능인만 양산된다면 무용 공연의 질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 나아가 무용의 사회적, 학문적 중요성의 사회적 연구와 토론이 요원해 짐으로서(송종건 2005 :22) 결국 무용예술의 고립, 생존까지도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된 예술의 사명은 소수를 위한,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다. 참된 예술은 인류의 안녕과 행복이 그들의 융합일치에 있다는 진리를 차디찬 이성의 범위에서 따듯한 감정의 밭으로 옮기고, 폭력이 아닌 신(神)의 나라, 즉 인류 생활의 최고 목적으로 여겨지는 사랑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다(톨스토이 1988: 10).

1) 임혜자가 1994년 무용학 체계화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4집에 발표하였다.

나아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가슴에서 이끌어내 표현하는 것으로 ‘사랑’이라는 미학적 종교정신을 바탕으로 참 생명을 나누는 것이(박순자 2012: 22) 곧 무용예술이며 그 예술에는 영적 차원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들과의 관계를 강화시켜 줄 능력이 있으며 이를 성경이 승인해주고(진 에드워드 비이스 1994: 13)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술의 가치 평가는 인간이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생의 선과 악을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에 따라 결정되며(톨스토이 1988: 76) 종교적 세계관을 가지지 않은 이들에게 좋은 예술과 나쁜 예술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는 개인적 쾌락 뿐이다.(톨스토이 1988: 83). 그런데 특히 무용 예술은 인간 자체가 예술이자 예술 작품의 도구가 되며, 인간의 존재에서부터 예술가가 가지는 종교적 예술관이 발현되기 때문에 예술가가 어떤 예술관을 가지느냐, 어떠한 예술관을 습득하느냐는 예술활동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본 연구는 SM대학의 학사, 석사, 박사과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술론 수업(무용예술론, 철학, 미학)이 수업을 이수한 재학 혹은 졸업생들의 예술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SM대학의 무용과 교과과정의 경우 학부에서 예술론, 무용미학 교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석사에서는 무용 예술론, 무용미학 교과가 박사에서는 예술철학 교과가 개설되어 있다. 교육이라는 것을 피학생자가 학습자에게 교육을 할 때 자신의 세계관, 가치관을 토대로 어떠한 이슈에 접근하여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다. SM대학의 예술론 수업의 경우 무용예술론은 진 에드워드 비이스의 『그리스도인에게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책을 주교재로, 무용미학의 경우 고바야시 신지의 『무용미학』, 톨스토이의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주교재로 철학은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주교재로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토론은 다양한 무용영상과 비평문들, 신문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담당교수가 기독교적인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교과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주교재는 아니지만 많은 이론들의 주석이라 할 수 있는 성경을 바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상기의 수업들 중 석사와 박사의 3가지의 이수를 하면서 연구자가 대학원 연구생들의 경험을 나누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예술관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수 듣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SM대학의 예술론 수업을 수강한 참여자 중 8명을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가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이기에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2016년 현재 서울지역 14개 대학에서 예술론 수업이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SM대학의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의 구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후 심층면담에서의 개방형질문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기초자료를 정리하였으며 면담내용 전사하고 분석함으로써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을 통하여 습득된 예술관이 예술활동에서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이며 문화기술적 접근방식으로 연구에 임하였다.

무용예술은 지극히 주관적인 성격과 객관적인 성격이 조화를 이룰 때 예술성, 작품성, 사회성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용가는 개인의 경험과 그에 대한 주관적 생각을 충분한 철학적 사유를 거쳐 실현할 때에 자신만의 예술관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 교과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예술론을 습득한다는 것은 과거는 그 시대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고, 현재에서는 그 예술론을 통하여 작품활동을 함으로서 영향력을 선사하고, 미래에는 그 영향력이 향유자 개인, 나아가 그 개인으로 인한 다수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을 지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관에 대한 다양한 학습과 이를 학습함으로써 무용가의 삶과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줄 수 있는 예술론 수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무용계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 혹은 예술론의 한 분야로서의 기독교 예술론의 학문화, 교육화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발견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하겠다.

2.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에서 예술론은 예술론, 무용예술론, 철학, 미학을 포함하는 것으로 예술관을 형성할 때 그 토대가 되는 인문학을 통칭하여 예술론이라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행한 2016학년도 서울지역 14개 대학의 학부, 석사, 박사 교과과정을 조사한 결과 각 대학에서 개설된 무용인문학의 교과명이 달랐으며 각 교과명으로 과목설명을 확인했을 때 그 내용이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예술론이라고 통칭하였다.

둘째, 예술활동이라 함은 한국사회에서의 무용계의 특성상 대학교육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연활동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공연을 위한 교육활동 까지 모두 포함되기에 예술활동은 공연 및 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통칭하여 연구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이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의 예술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연구이지만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특성상 소수를 대상으로 하여 얻어진 결론임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질적연구 중 문화기술적 연구로서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예술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SM대학의 경우 학사, 석사, 박사과정에서 각 1개 이상의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석사과정 이상의 참여자들을 선정하였다.

1. 연구참여자

| | 성명 | 성별 | 연령 | 종사분야 | 종사경력 |
|---|------|----|-------|------------------------------|------------------|
| 1 | KJY | 여 | 만 39세 | 교육 - 선교무용지도 공연 - 선교무용단 단원 | 교육 21년 공연 17년 |
| 2 | KIS | 여 | 만 55세 | 교육 - 무용치료 | 18년 |
| 3 | KSE | 여 | 만 31세 | 교육 - 무용 | 8년 |
| 4 | BHJ | 여 | 만 26세 | 공연 - 민간무용단 연구단원 | 8개월 |
| 5 | AYH | 여 | 만 50세 | 공연 - 공연 기획 및 연출 | 6년 |
| 6 | LSM | 여 | 만 49세 | 교육 - 고등학교 교사 | 16년 |
| 7 | JB Y | 여 | 만 27세 | 교육 - 예고 강사 | 3년 |
| 8 | CSJ | 여 | 만 27세 | 공연 - 선교무용단 단원 | 9년 |

<표1> 연구 참여자

상기와 같이 본 연구를 위하여 참여자들은 유목적 표집법에 따라 선정하였다. 이들은 SM대학의 학, 석, 박사 과정에서 무용예술론, 철학, 미학을 이수하였으며, 예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임으로 수업 이수 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자들 중 8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20대~5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짧게는 8년에서 길게는 약 21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연예술분야와 교육분야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각자의 여건과 상황에서 어떻게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을 받아들이고, 이를 적용하여 예술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심층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2016년 9월 29일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받아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시 ‘Spradley(1979)가 제안한 발달식 문화기술적 인터뷰 방법’인 일대일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구조화된 면담(Structured interview)과 응답에 따라 무계획 표준화된 면담을 병행하였다. 면담 시작 전 참여자들에게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할 것이며, 인터뷰 내용의 기록에 있어서도 익명성이 보장됨과 동시에 연구가 끝난 후 자료는 모두 폐기될 것임을 알렸다.

구체적인 면담방식은 면담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주된 질문5가지를 E-mail로 전송하였고, 무계획 표준화된 면담을 위하여 내용을 녹음기로 녹취하고 전사(Transcription)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후 면담의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할 경우 E-mail과 전화면담을 진행하였다.

3. 자료분석

인터뷰 녹음 및 전사한 대화기록 및 통화 내용을 반복하여 읽고 정리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 줄거리, 주제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연구텍스트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쳐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을 통해 개인의 프로필과 일반적 예술론 수업의 경험, 종교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이후 녹음된 파일을 주의깊게 들으면서 컴퓨터로 전사하였고 입력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고 분류하여 범주화 하였다.

4. 자료의 진실성

모든 텍스트는 해석적 텍스트이며 이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질문에 대해서는 관련분야의 3인의 교수진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선입견을 최소화 하고, 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검토, 전문가 협의, 다각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본 장에서는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가 예술활동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심층면담의 결과를 논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수집한 자료들을 유사한 항목끼리 범주화함으로써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을 통하여 습득하게 된 기독교적 예술관과 형성된 기독교적 예술관을 통하여 예술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현재 예술활동에 대한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예술론 수업의 경험과 연구 참여자들의 종교에 대하여 먼저 논하고자 한다.

1.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의 인식

1) 현재 대학 교과과정에서의 예술론 수업 현황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오늘날 무용예술이 춤추기, 공연하기라는 행위에서 벗어나 무용의 존재 및 정체성에 대한 현실의 고민을 해야 할 때(박순자 2013: 94)이며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

이 예술론이다. 본 연구는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이 예술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연구하기에 앞서 기독교적 예술론이 아닌 일반적 예술론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이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였다. 하여 우선적으로 현재 대학에서 예술론 수업이 얼마나 교육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2016학년도 현재 서울시 소재 4년제 대학의 학부, 석사, 박사과정의 교과과정에서 예술론의 개설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으며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각 대학 무용과 사무실로 전화문의를 하여 예술론 교과개설을 확인하였다. 또한 무용전공이 포함된 단과대학, 대학원을 통하여 무용전공, 무용학전공의 예술론 수업을 조사하였다.

그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2와 같다.

| | 대학 | 학부 | 석사 | 박사 |
|----|------|-------------|------------------|------|
| 1 | KHU | 무용미학 | 무용철학 및 미학 | - |
| 2 | KMU | - | 무용예술론(창작 중점) | |
| 3 | SCU | - | - | - |
| 4 | DDU | 무용미학 | 무용철학특론 무용미학특론 | - |
| 5 | SMU | - | 무대예술론 | - |
| 6 | SKU | - | 무용미학특론 | - |
| 7 | SKKY | 무용예술론 | - | - |
| 8 | SSU | - | - | - |
| 9 | SJU | - | 무용미학론 | - |
| 10 | SMU | 무용미학 예술론 | 무용미학 예술론 | 무용철학 |
| 11 | EHU | 무용미학의 기초 | - | - |
| 12 | HSU | - | - | - |
| 13 | HYU | - | 예술론 | - |
| 14 | KNSU | - | - | - |

<표2> 서울시 소재 4년제 소재 대학의 예술론 수업 개설 현황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술론이 개설되어 있는 현재 서울시내 소재 대학은, 학사과정 5곳, 석사과정 8곳, 박사과정 1곳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석사과정 이상의 경우 교과과정의 사이클이 2학기 혹은 4학기로 개설된다는 점을 감안하고서라도 한국사회에서의 무용예술론에 대한 교육은 실기만큼의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실제로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HY대학의 박사과정의 경우 2015학년도까지는 교과과정에 편성되었으나 2016-2017학기에는 교과편성에 빠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술의 특성상 실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국의 교육환경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이론학문은 주요과목에서 제외되기 마련이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술론은 단순히 각 예술분야를 잘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예술의 기초로서 꼭 필요한 학문임을 강조해야 해요.(CSJ)

상기의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처럼 한국에서의 무용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학부는 실기위주이고, 이론에 대한 공부는 석사과정 입학 후이나 이루어질 수 있다는 보편적 인식과 제도 아래 학부에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의 대학에서 예술론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석사과정에서는 그나마 8곳에서 예술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박사과정에서는 단 1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예술론에 대한 중요성만큼이나 교육에 대한 무용인들의 인식이 보편화되지 못하였으며 무용의 인접분야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균형을 맞추어 발전했다기보다는 실기교과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교과과정이 개설되고, 교육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일반적 예술론 수업과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에 대한 경험

본 연구는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에 대한 영향력을 연구하는 것임으로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 이전에 일반적인 예술론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조사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적 예술론 수업을 통해 형성되어진 개인의 예술관이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을 받아들임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에 그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의견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부에서 미학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에서의 수업은 수강하는 저도 어떤 철학적 깊이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지 못하였고, 당시의 교수님께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셨다기 보다는 책과 관련된 내용만 주입식으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에 나는 것이 없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수업을 한 적이 없어요.(KJY)

학부에서 예술론 수업을 들은 경험이 있지만 그냥 아주 심플한 예술론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론이나 예술론이 없는 것 같아요.(KIS)

저는 학부에서 예술론 수업을 들은 경험이 없어요.(KSE, LSM, AYH)

총 8명의 연구 참여자들 중 석사과정 이전에 예술론 수업을 받은 대상자는 KJY, KIS, BHJ, JBY, CSJ 5명으로 이들 중 2명(KJY, KIS)은 일반적인 예술론 수업을 들은 경험이 있으며, 3명 중 2인(BHJ, JBY)은 S대의 학부 출신으로 학부에서부터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을 수강하였다. 그 외 1인(CSJ)은 기독교예술신학교 학부출신으로 역시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예술론 수업만을 이수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세부과목은 무용미학이 4명, 예술론이 3명으로 나타났다.

학부에서의 수업은 실기에 더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론 수업에 크게 관심을 두고 깊이 있게 듣거나 하지는 못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학부에서 들은 예술론 수업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남아 있지 않을 것 같아요.(KJY), (KIS), (LSM)

예중, 예고 때엔 입시를 위한 실기위주로 배웠고, 이론적으로는 무용역사를 시대별로 배우고 암기해서 시험을 보는 형식의 수업이었어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다양한 공연을 참여하면서 공연경력을 쌓는 실기위주의 공부를 했어요.(BHJ)

할 수 있다는 희망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 하셨지만 이것도 완벽한 테크닉을 구사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었던 것 같아요.(JBY)

이상의 사전조사에 따라 연구에 참여한 8명의 참여자들은 예술론 수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거나, 일반 예술론을 수강하고 기독교적 예술론을 수강했거나,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만을 수강하는 등 참여자 구성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취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적 예술론 수업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거나, 이 수업을 통해 들었던 예술관을 기억하지 못했고, 실기 위주의 가르침으로서 교육을 기억하고 있었다.

3) 종교적 관점에서의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에 대한 인식

본 연구는 종교성을 넘어선 학문적 관점에서의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에 대한 연구이지만 참여자들의 종교가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을 받아들임에 있어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참여자들의 종교를 확인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와 같다.

| 기독교인 | 비기독교인 | | |
|----------------------|------------|-----|-----|
| | 무교 | 불교 | 카톨릭 |
| KJY, BHJ LSM, CSJ | KIS KSE | AYH | JBY |

<표3> 참여자들의 종교

표 3과 같이 기독교인은 4명, 비기독교인 4명이었으며 비기독교인은 무교 2인, 불교 1인, 카톨릭 1인이었으며 일반대학에서 이루어진 기독교적인 예술론 수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았다.

저는 신앙에 많이 심취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그런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좀 특이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기독교에서의 교리나 말씀 이런 부분들은 꼭 기독교인에게만 적용되고, 기독교인들만 공유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톨스토이나 진 에드워드 비이스라는 예술가가 자기의 예술의 관점, 예술의 가치를 자신의 신념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서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었기 때문에 많이 부담이 되거나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KIS)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학부에서부터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이 비교적 쉽게 다가왔지만 비기독교인 친구들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입시를 위한 실기위주로 배웠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느끼는 부족함이 있었지만 예술론의 경우는 처음부터 기독교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BHJ)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기독교적 예술론이라는 말과 같이 어떤 특징을 바라볼 때 기독교적 이론이 항상 뒷받침된다는 점이 처음에는 의아했거든요. 하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감정은 거부감이라기 보다는 기독교적 이론을 몰랐기 때문에 들었던 이질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수업을 통해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술론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JBY)

저는 신학교에 있는 무용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학부에서 석사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한국무용을 전공이라기 하기보다는 기독교무용 전공이라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물론 앞으로 학업을 지속함에 있어서도 기독교 무용을 전공으로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예술론에 제가 가진 신앙을 적용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꺼예요. 그래서 거부감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기독교적인 관점이 중심이 되어 더욱 유익했어요.(CSJ)

연구의 참여자들은 무용을 전공한 기독교인, 무용을 전공한 비기독교인, 기독교무용을 전공한 기독교인들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기독교적으로 진행되는 예술론 수업에 대한 큰 거부감은 다수가 느끼지 않았다. 반면, 소수의 비기독교인은 처음 수업에서 느꼈던 거부감이 수업을 진행할수록 거부감이 아닌 모름에서 오는 이질감이라고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 역시 예술론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을 받아들였다.

2.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을 통해 습득된 예술관

오늘날 사회에서 예술이 허위에 빠지게 된 배경은 기독교의 교리가 가르치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기독교의 가르침과 그 취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해 여전히 신앙이 없는 생활을 계속하면서 표면만을 곱게 꾸미고 있기 때문이다(톨스토이 1988: 235).

1) 본질에 대한 이해와 탐구

본질(本質)의 사전적 의미는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 실존에 상대되는 말로, 어떤 존재에 관해 ‘그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성질(<http://dic.naver.com>)을 의미한다. 즉 존재의 의미이자 목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스 로크마커(Hans R. rookmaaker)교수는 모든 사물, 행동, 인간의 노력들은 오직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술의 실재와 인간성의 근거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1987: 41)

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창세기 1: 1). 따라서 인간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피조물은 조물주의 뜻에 따라 그 존재의 의미가 부여된다.

저는 제가 기독교인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창조주가 하나님이고, 그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가 예술적인 부분에서는 미술, 음악, 무용 등 여러 가지 각자의 자기 역할을 하는데 그것에 부합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의 창조성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LSM).

저는 종교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에서의 교리, 말씀 이런 것들이 꼭 기독교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를 떠나서 그냥 인간에게 말씀으로서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세상의 시작은 인간의 존재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은 창조되었고, 인간을 창조한 이가 하나님이며, 그의 창조성이 인간에게도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죠.(KIS)

제가 학교를 다닐 당시 무용계에서 추구하는 스타일은 모던함,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어떤 작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전, 모던함, 새로운 것에 대한 재창조, 파격이 곧 예술이고 예술은 이래야 한다는 본질보다는 작품에 관한 고민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배우고 그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물인 인간이 가져야 하는 필연적인 사명, 문화사명이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KJY)

인간은 유일하게 창조물이자 창작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인간일 뿐이기에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창조성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자구적인 물음은 인간의 생이 끝날 때 까지 이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예술작품은 창조행위의 산물이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에게 그 창조성의 의미가 그대로 부여되었기에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과 그 인간의 창작물인 예술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김수진 2015: 120).

② 내면적 요소로의 인식변화

예술은 긴 시간 내면적 요소 즉 정신보다는 외면적 요소에 집중되어 발전되어 왔다. 작품성과 예술성에 대한 논의 보다 작품의 보조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의상, 소도구, 무대 등에 대한 외면적 요소에 많이들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로인해 무용예술은 자가당착에 빠져 발전이 저속화되고 대중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예술활동을 활발하게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내가 무용을 할 당시에는 주로 무용의 테크닉과 아름답게 추는 것, 예쁘게 추는 것에 대한 외면적 표현에 중점을 두었었어요. 내가 춤을 출 때도, 졸업 후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인간의 본성을 깨운다거나 자기를 새롭게 하고 성찰하는 것으로서의 무용이 아닌 무용의 테크닉을 가르쳤었죠.(KIS)

예술은 미적가치를 창조해내는 인간의 독창적이고 순수한 표현행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재의 예술은 외면적으로만 중점을 두고 행해지는 행위들이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용예술의 존재의 의미가 모호해지는 거죠.(KSE)

현대시대에는 기능만을 추구하는 예술보다는 피폐해진 인간의 감성을 올바른 가치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곧 예술의 가치추구라고 생각해요.(AYH)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무용은 아쉽게도 보여지는 예술이기 때문에 외모나 체격, 턴 아웃과 같은 외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조건들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제가 자라온 환경에서의 무용예술은 이미 자본주의 시대의 예술로 올바른 이해가 배제되고 테크닉에만 힘쓰는 습득과정을 거치게 되었죠.(JBY)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무용예술의 본질에 대한 생각보다 대다수 긴 시간동안 외면적 표현, 테크닉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받으며 성장해 왔음을 밝혔다. 그러나 예술론 수업을 통하여 무용예술의 외면적 요소 이외에도 내면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예술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무용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예술을 직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삶은 하루하루가 예술을 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위대한 예술작품은 인간일테니까요.(JBY)

무용예술은 창조된 인간이 사상과 감정,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을 신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인간이 무용예술의 주체이자 도구가 되는 것이다. 즉, 신체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내는 도구이며, 신체를 통해 다양한 표현이 이루어 질 수 있지만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탐구 없이 무용예술에만 몰두하여 외면적 요소에 치중한다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모호해질 수 밖에 없다.

예술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파괴적이거나, 추상적인 형태를 유지한다면 정작 예술이 갖추어야 할 본질이나 내용을 놓치기 쉽다. 또한, 외면적인 형식이나 표현에만 집중한다면 그 역시 예술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을 잃어버리게 된다. 결국, 하나님 아닌 것을 향한 예술의 추구는 결국 인간을 공허하게 하고 실의에 빠지게 하여 인간을 피폐하게 만듦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예술의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김수진 2015: 117).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무용예술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소통에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반복된 실패는 결국 무용예술은 고립과 생존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2) 선함의 가치 추구

시대적으로 각 사회, 각 나라마다 추구하는 가치는 달라진다. 가령 고대 그리스에서는 지성을 추구하였고, 중세에서는 기독교 신앙에 가치를 두었다. 또 많은 미학자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선미(眞善美)에도 가치를 두었으나 진(眞)과 미(美)는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善)에 대한 인간의 가치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와 가치는 거의 변하지 않았고 선(善)에 대한 인간의 가치평가는 보편타당한 범위에서 공감하고 이를 추구하고 있다.

무용예술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선함이라 생각해요. 작품자체가 인간에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좋

은 것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예술작품은 선(善)해야죠. 쉽게 우리가 착하다라고 이야기 하듯이 모든 사람에게 착한 예술이 되어야죠. 나의 선이 타인에게 악이 될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요. 또, 수업 때 무용예술이 가지는 감염성에 대하여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가의 작품을 통해서 관객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선(善)이라는 바이러스로 감염체인 관객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하는 거죠.(KJY)

선과 사랑이 기독교적 예술을 행하는데 잊고 있었던 기본과정을 다시 상기시켜주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용예술을 배우고 경험할 때 올바르게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술의 과정에 대한 안내 없이 무조건적으로 관객이 모두 반아드려야 한다는 듯이 전달 받는 전 과정을 관객의 몫으로 넘기는 것은 무용가가 관객에게 행하는 폭력일 수 있습니다. 선과 사랑은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시 되고 유지되어야 할 특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을 너무나 쉽게 간과하며 일상생활을 해요.(JBY)

흔할 수 있지만 진선미(眞善美), 우리가 가지는 외형적인 미의 가치가 아닌 우리가 가진 본질, 선(善)은 아무것도 때 묻지 않은 선함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본성, 선함을 일깨우고 그것을 표현하게 함으로서 자기를 새롭게 발전시키고 성찰하는 무용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KIS)

선(善)하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상대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기준을 의미한다. 선하다는 것은 예술이라는 명목하에 대중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선함의 가치는 만인이 예술 앞에서 평등하고 함께 누리며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예술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성질, 곧 선함의 가치기준이라 할 수 있다.

3) 진정성 있는 무용예술

무용예술은 무용수의 생각과 표현에 의해서 발현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인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 그저 한번에 소모되고 마는 일회성 예술이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행위이다. 진정성이란 참되고 애뜻한 정이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진실 된, 진정한 사랑(애정)이라 할 수 있다. 진정성이라는 것이 작품을 통해서 한 순간에 발휘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성은 무용가의 일상생활과 삶에서부터 적용되고 실천되어짐으로써 무용가의 작품에도 순전하게 표현되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심사위원 혹은 관객들 앞에서 춤을 춰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요. 작품 순서를 준 이후에는 동작설명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관객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제자들의 마음가짐 혹은 그들의 노력을 물어보고, 들어주려고 노력해요.(KSE)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가치를 두고자 노력해요. 이 노력은 하나님의 가치는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무용을 행할 때 추구할 수 있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BHJ)

오늘날의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현대의 어떤 사머니즘과 우리가 현대의 삶을 일탈하는 모든 부분들이 예술적인 부분으로 많이 표현된다고 현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진정성 있는 예술이 가장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진정성 있는 예술은 기독교에 관련된 진실성과 순수성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예술이라는 것이죠. 참된 예술은 진짜 무용예술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진실성, 그 내면의 굉장히 진실적인 부분들을 표현하는 무용수와 이를 보는 관객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었어요.(LSM)

4) 책임감

인간의 모든 행위는 개인적 행동에서는 그 범위의 한계를 지을 수 없지만 개인이 집단에 속하게 되고, 사회에 속하게 되면 개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이다. 책임감이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의무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http://krdic.naver.com>)으로 무용가는 자신의 무용의 외면적 요소로서의 신체행위에 대한 책임, 작품에 대한 책임을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고 내면적 요소로서의 무용수인 자신과 무용수들을 위한 책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무용교육이니까 교과과정내의 무용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했어요. 이것 외에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가나 소위 인성을 좋게 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업을 듣고, 이후에 무용치료를 하게 되면서 무용이라는 것을 통해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을 깨우게 하고 그것을 표현하게 함으로서 자기 성찰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무용예술의 힘이 내가 무용치료사로서 대상자들에게 갖는 책임감을 더 강하게 합니다.(KIS)

나는 가끔 예술만을 향유하고, 달려가고자 하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럴때면 잠시 멈춰 서서 깊게 고민하는 시간을 예술론 수업을 통해서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술을 하는 목적과 가치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치열하게 기도하고, 더 옳은 결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답의 길을 걷고 있다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제게 주신 무용이라는 은사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거든요.(BHJ)

저는 선교무용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나는 나의 삶과 행위, 작품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제 모습이고, 저와 하나님과의 둘만의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달라요. 학교라는 특성상 종교에 대한 강제성을 떨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심을 잘 잡지 못하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무용반은 그냥 보여주기 식의 춤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제게 맡겨진 학생들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하나라도 허투루 듣거나, 그들의 행위를 의미 없이 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LSM)

무용수로서의 책임, 교육자로서의 책임은 자기의 영역에서 무용가가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책임감이란 것은 자신의 행위와 생각에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 지켜내고자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기독교적 예술관을 통한 예술활동의 변화

고바야시 신지의 무용미의 구조를 살펴보면 무용예술은 내면적 구조와 외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바야시 신지 1983: 48). 물론 좋은 예술이란 내면과 외면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이지만 한국사회에서의 무용은 긴 시간 외면적 구조에 집중하여 양적인 성장에 집중하였다. 또한 질적성장이 더딘 한국사회의 무용계였기에 작품 위주의 활동에서 자신만의 예술관을 갖기란 쉽지 않다.

1962년 대학무용교육이 시작된 이후로 약 50여년에 이르는 현재까지 지적되는 무용계의 양적·질적 성장의 불균형은 무용가들이 예술에 대한 다양한 생각의 접근, 본질적 접근을 하는 것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 오랜 시간 실기위주의 교육 속에서 성장한 무용인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석사와 박사과정에 입학해야만 자신의 예술에 대하여 돌이켜 보고 자신의 무용예술세계를 점검할 수 있는 학문적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예술관을 습득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예술활동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는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1) 정신적 가치 추구

현재의 무용예술이 외면적으로 중점을 두고 행해지는 행위라고 해서 계속 그런 외면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할 수는 없어요. 예술은 올바른 내면을 닦아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술, 즉 감동적인 예술을 전하는 것이 때문이죠. 물론, 실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실력이 기본적으로 받쳐주면서 올바른 내면을 닦아가는 것이 중요해요.(KSE)

예술이 좀 더 풍성해 지기 위해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예술에 대한 향유가 아닌 예술의 목적을 이해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한 가치관의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BHJ)

예술의 사회적 가치추구는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의 삶을 영위하고 예술행위를 함에 있어 올바른 정신적 가치추구를 통해 심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정신체계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루어진 정신 체계위에 새로운 예술활동이 일어나야 합니다.(AHY)

내면적인 진짜 예술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실제로 학생들을 보면 예술을 경험한 수치도 많지 않고, 나아가 진정한 예술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예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이들에게 예술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신적 가치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LSM)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부족하기에 코람테오의 자세를 유지하려고 해요. 이것은 비단 저 뿐만 아니라 제가 가르치고, 함께 연습하는 사람들에게도 강조하는 것인데 테크닉이나 기술적인 연습보다는 내면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연습도 기술을 넘어서서 연습자체로도 예배라는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CSJ)

사실상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는 무용예술은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부호로 인하여 시각예술이라는 편견에 쉽게 사로잡힐 수 있다. 그래서 표현에는 관대하지만 내용에는 관심을 두지 못할 수도 있다. 물질적 가치를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각만을 통해 줄 수 있는 감동은 소모적일 수 밖에 없고, 더 큰 자극을 찾기 위해 더 자극적인 형태를 찾아 몰두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소모적이고 일시적인 감동은 결국 인간과 인간, 무용가와 관객을 연결하며 이러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공연의 질을 향상시키기 어렵게 만든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명언처럼, 역설적으로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신체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없어지고 사라져 버릴 것들에 대한 욕심이 아닌 보이지 않는 진리에 대한 탐구와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관객과의 소통을 위해서 기독교적 예술론의 입장에서 무용예술은 정신적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발휘하는 것이다.

2) 소통

소통은 감염성이라는 성질이 있는 예술에서는 필연적인 요소이다. 소통이 아닌 불통의 예술은 결국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무용예술이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은 무용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느끼고 있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약 2년의 간격으로 조사된 문화향수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연구)에서 무용공연 관람률은 지난 14년간 최대 2.4%를 넘지 못했고, 연평균 관람횟수 마저 1회가 채워지지 못하였다. 모든 관계성은 상호간의 작용을 한다. 인간과 인간 뿐 아니라 인간과 예술 역시 그러하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시작된 긴 무용의 역사에서 오늘날 무용인들이 느끼는 만큼 일반인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무용계라는 협소한 영역에서 상호간의 협력만이 이루어졌기에 공연장에서 보면 대다수의 관객이 무용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용예술이 가지는 본질 중 하나는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횡으로의 소통과 종으로의 소통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세대 간 그러니까 예전 100~200년 전에 만들어진 예술을 지금 현대인들이 보면서도 감탄을 하고,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얻는 것 처럼 세대간의 소통이 예술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과거의 예술과도 우리는 소통을 할 수 있고, 동시대의 사람들과도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무용예술이 존재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관객과의 소통은 필수적인 것이예요.(KIS)

나를 보이기 위함이 단 0.1%라도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그냥 자기만족, 자기 아름다움에 심취하는 것이예요. 자기만의 무용예술은 관객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과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정말 관객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냐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야 합니다.(LSM)

무용예술은 신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해야 하고 이 메시지가 관객들의 공감을 이루어낼 때 소통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술가의 주관적인 예술세계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창작활동을 하고 이것이 관객과의 소통을 이루었을 때 예술이 예술다울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CSJ)

소통은 무용이 예술로서 존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소통이 없는 무용예술은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의미 없는 동작나열로 자기만족, 일부계층을 위한 향유물로 전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소통의 중요성은 긴 시간 관객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고립될 수 밖에 없었던 역사적 시기를 예술론 시간을 통해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인간에 대한 이해(제자, 관객에 대한 이해)

무용예술은 그 표현의 주체인 인간에 존중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짧은 시간 양적 성장을 이루어 온 무용예술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보다는 작품과 작품을 행하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이는 예술을 창작하는 주체도 인간이고 이를 표현하는 이도 인간이며, 향유하는 이도 인간이기 때문에 무용예술을 소비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비롯되지 않으면 무용예술이 인간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기 보다는 예술을 위한 예술로 인식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을 듣기 전후에 확실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지도하는 과정에서는 테크닉에 중점을 두고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고, 실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후에는 인간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되었고, 지도자로서 제자들을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하고자 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예를들면 예전에는 실수에 대한 질책이 앞섰다면 현재는 실수에 대한 질책에 앞서 그들의 실수가 유발되었던 것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하며, 위로 하고 이후에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모색을 한다는 거죠(KJY), (LSM), (CSJ), (AYH)

저부터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고 비록 경쟁의 한 부분에 있더라도 심사위원이나 관객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그 마음을 가감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KSE), (KIS)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을 이수한 연구의 참여자들에게 기독교적 예술론을 통한 큰 변화는 그 중심이 사람이라는 것이다. 작품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라는 질문에 그 답변이 많이들 변할 수 있겠으나 교육적 과정에서 피교육자를 포용하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곧 삶에서부터 예술을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실력 위주의 성과 주의에서 인간의 마음을 알고, 위로함으로 변화를 도모한다는 것은 인간을 향한 지극한 이해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하게 될 수 있다.

4. 일반적인 교과과정으로서의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

1) 절대적 신앙의 강요가 아닌 보편적인 종교로서의 접근

기독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믿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 그 십자가 희생으로 인간이 얻게 된 구원의 확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에서의 기독교에 대한 대다수의 인식은 긍정적이지 못하고, 일반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는 거부감 혹은 부담감을 갖게 한다. 나아가 일반인들이 보기에 극히 주관적일 수 있는 개인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보편화 하기에는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체험적 신앙의 종교라 할 수 있다. 이는 기독교가 가지는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인 신앙의 체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화되어 이해 받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절대성을 따지는 종교라는 영역은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기독교적 교리에 바탕을 둔 기독교적 예술론이 정립된다면 깊이 있는 신앙을 떠나서 개인의 신앙의 강요가 아닌 종교의 하나로서의 접근되어야 해요.(KJY)

제가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예술가가 꼭 기독교 관점이어서가 아니라 기독교를 통해서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런 관점에서 예술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고집적 신앙보다는 종교 중의 하나로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KIS)

종교적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면 타종교인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절대적 신앙이라고 강요하기 보다는 기독교적인 정신과 이러한 정신이 기록되어 있는 성서를 통한 거부감 없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KSE)

2) 학문으로서의 기독교 인식

서양의 예술사를 접하다보니 기독교의 역사와 사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서양예술사에 기독교적 사교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역사를 서양예술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AYH).

무용예술이 대한민국에서는 대다수 서양무용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한국무용의 현대화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서양의 종교이며 서양학문의 발판이라고 보는 기독교를 학문으로서 함께 연구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사례가 될 것 이라 생각해요.(JBY)

예술론 수업을 들을수록 기독교적인 어떤 종교성을 가진 예술론 수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술에 있어서 종교성을 빼트리고 이야기 할 수는 없어요. 이걸 서양사에서 시대적으로 무용예술이 종교성을 포함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 무용에서의 기독교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KJY)

서양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종교라는 이유만으로 그 시대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뛰어넘어서 교육되어야 한다면 전반적인 예술론 자체를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CSJ).

예술은 종교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굳이 무용에 종교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서양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기독교를 포함하지 않는 예술은 없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무용에 있

어서도 기독교적인 종교성을 토대로 예술론의 체계를 세워간다면 기독교적인 사상이 학생들에게 잘 교육될 수 있을 것 같아요(KJY)

서양예술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다보면 기독교적 예술론이 중요한 사적자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강요보다는 학문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AYH).

미국의 화폐인 달러를 보면 'IN GOD WE TRUST' 라고 적힌 문구를 볼 수 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과 같이 긴 시간 속에서도 찬사 받는 예술작품이 있다. 서양의 역사와 서양의 예술사를 통해 인간의 인식의 기저가 기독교임을 발견할 수 있고 누구도 이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만큼 서양의 역사, 서양의 예술사를 접하다보면 주관적인 기독교가 아닌 예술활동과 학문활동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기독교 사상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한국사회에서 기독교적이라는 예술론이 교육되기 위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해보아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적으로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편견적인 인식을 뛰어넘어야 하고, 학문과 기독교적 이론에 대한 모호성, 혹은 절대성을 이론적으로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

3) 중립적 입장에서의 교육자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이 일반교과과정에서 교육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종교성이 있는 학문분야라는 것만으로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서 외면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이 비종교인이 수강하기에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보편화된 모습과 여러 예술론에 능통한 교육자가 중립적 입장에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TV에 나오시는 장경동 목사님처럼 꼭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기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적인데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시지로 예술론의 체계가 세워져야 해요(KIS)

믿음이라는 신념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학문적인 방향으로 탐색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적인 강요로 '이건 좋은 이야기니까 대립해서 배워야 돼'가 아닌 '이런 방향으로도 생각해보자'라는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수업이 된다면 학생들의 직접적인 사고와 경험을 통해서 기독교 예술론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저는 카톨릭 신자이지만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세계관은 배울 점이 많으니까요(JBY)

예술론은 일단 가르치는 지도자가 예술론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이론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된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한 부족함을 저는 많이 느끼는 편인데 아무래도 실기 위주의 교육을 받고, 실기위주의 교수님들이 지도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깊이 있는 예술론 수업을 듣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준비된 교육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KJY)

요즘처럼 창의적 인재양성을 필요로 하는 대에 예술론 수업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수업에 너무 종교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면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도 몰라요. 그래서 교육하는 교육자의 입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독교적 특징을 너무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요. 물론 기독교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이 있는 교육자가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을 진행하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수업을 이끌 수 있다면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이 예술활동의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 줄 거예요(JBY)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기독교적 예술론이라는 제목에서부터 일반인들은 반감이나 거부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자가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다는 이분법적인 논리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 입장에서 교육을 하고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CSJ)

상기의 의견들과 달리 기독교인으로서 일반교과과정에서의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표하는 연구의 참여자와 오히려 기독교적 예술론을 더 부각시켜야 한다는 의견의 참여자도 있었다.

예전 수업에서의 흐름은 기독교 예술과 현대의 예술에 대한 조합이 너무 잘 어울어졌었어요. 퍼즐이 맞춰가는 것 처럼. 그럴려면 기독교적으로도 능통하고 예술론적으로도 능통한 교육자가 필요해요. 한 학기동안 기독교적 예술론을 교육하던 일반적인 예술론에서 한 챗터로 기독교적 예술론이 소개가 되던지 어느 쪽으로 선택되더라도 편협성으로 받아 드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기독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교육을 한다면 기독교의 진리 자체가 잘못 전달 될 수 있기 때문에 곱할기식으로 아는 사람은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성서적으로 관통해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성령 안에서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교육을 했을 때, 현대예술과 기독교적 예술론의 양극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LSM).

연구의 참여자 LSM은 기독교의 정신이 약화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이는 기독교적 신앙 안에서 바로 서있으면서 예술론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양극의 균형이 잡힌 교육자가 있다면 얼마든지 기독교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얼마든지 일반화 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저는 행정상의 문제가 없다면 어느 대학의 채플처럼 일반적인 이름의 미학, 예술론이 아닌 기독교적 예술론이라는 타이틀로 다가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해요. 좀 더 기독교에 대해 당당하게 다가가면서도 비그리스도인에게 부담 없이 수업을 할 수 있다면 학문의 한 분야로서 뿐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BHJ)

연구 참여자 BHJ은 오히려 기독교라는 부분을 더욱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야 함을 이야기 하였다. 이는 반드시 기독교인들의 행위나 태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하며, 행위의 모범만이 현재 기독교라는 이름에 대한 인식을 완화시키고,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상기의 3가지의 입장 중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상황과 여건에서건 예술론을 교육하는 교육자 태도와 역할을 매우 중요하며 이렇게 교육자의 사상과 역량에 따라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기독교적 예술론이 일반교과과정에서 교육되기 위한 첫걸음은 기독교적 예술론을 교육할 수 있는 합당한 교육자가 양성되어야 하며, 기독교인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보편타당한 종교로서의 기독교적 교리를 통한 기독교적 예술론이 정립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IV 결론

본 연구는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이 예술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확인하고자 8명의 연구 참여자들을 심층면담 하였다. 8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크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두 집단에서 나타나는 상반된 의견은 없었다. 또한 일반적인 예술론을 이수하고 기독교적 예술론을 이수한 참여자들에게 대하여서도 기독교적 예술론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무용교육의 환경의 특성으로 무용은 곧 실기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실기위주의 교육을 받아 왔고 실기에 더 중점을 두었기에 일반적인 예술론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예술활동에서

역시 테크닉과 실기에 대한 실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을 통하여 얻은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활동에 있어서 종교성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관점은 종교라기 보다는 새로운 학문활동의 관점으로서 보다 넓은 시각과 학문에 대한 다양한 접근 형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를 탐색함에 있어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처음에 거부감, 의아함을 가졌었더라도 수업이 진행됨에 있어 기독교에 대해 몰랐었던 이질감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점의 예술론으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무용예술과 무용예술의 주체인 인간을 존재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창조물로서의 본질, 존재의 의미가 분명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며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인간의 본질과 예술의 본질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연구의 참여자들은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을 통하여 기존의 실력이나 테크닉과 같은 외면적 가치에 대한 예술관에서 정신적 가치의 예술관으로 그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나 테크닉에 관대해 진다는 것은 아니며, 실력이나 테크닉은 무용가에게 기본사항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에 앞서 정신적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연 활동과 교육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간과 작품에 대한 진정성과 책임감이 예술활동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하여 절대적 신앙으로서의 장요가 아닌 넓은 의미로서 그 교리가 바탕이 되는 기독교적 예술론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기독교적 예술론이 일반교과과정에서 교육된다면 일반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일반교과과정에서의 교육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이 일반교과과정에서 교육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자의 중립적 입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중립적 입장의 교육자가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주관적 견해에 대한 편협성이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의 예술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예술론에 능통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이 굳게 서있는 교육자가 아니라면 오히려 기독교 정신이 약화되고, 곁핍기식의 수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은 창조물로서의 인간의 본질과 정신적 가치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추구함으로써 예술활동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독교적 예술론이 종교라는 틀에 얽매어 학문으로서의 영향력마저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론이라는 학문의 한 분야로서 예술가들에게 소개됨으로서 학문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연구자는 오히려 광의적인 범위에서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갖게 되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기독교적 예술론 수업이 일반화 된다면 인간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서 오늘날 나타나는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인류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폭력이 아닌 신의 나라 즉 사랑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는 무용예술의 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나아가 예술과 삶이 분리 될 수 없기에 기독교적 예술관이 형성되고 이를 받아들여 예술활동을 한다면 무용인들의 삶에서, 그들의 행위에서 기독교의 정신이 발휘될 수 있기에 교육을 통한 광의적인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리하여 기독교적 예술론 자체가 선교의 도구로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고바야시 신지, 김정자 옮김(1983). 『무용미학』 서울: 현대미학사
- 진 에드워드 비이스 2세 (1994) 『그리스도인에게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서울: 나침반
- 한스 로크마커 (1987). 『예술과 그리스도인』 서울: IVP
- 송종건 (2005). 『무용예술의 비평적 조망』 서울: 금광
- 이종록 (2004). 『성서로 읽는 디지털시대의 몸 이야기』 서울: 책세상
- 김소영·한준영 (2014). “대학 무용 전공 교과과정 구성 경향 탐색.” 『한국무용과학회지』 . 31(3). 1-16.
- 박순자 (2013). “무용예술의 발전을 위한 대학무용교육의 방향 제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 71(6). 83-110.
- 서숙희, 이윤혜 (2012). “대학 무용(학)과 현장연계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실태조사.” 『한국무용연구』 . 20(1). 37-58.
- 김채현, 이순열, 이병옥, 김태원 장광열 (2012). “춤 지성의 공백 부르는 매너리즘 타파해야.” 『춤웹진』 2012Ⅱ(31). 18-30.
- 김수진 (2015). “기독교 예술관을 적용한 무용예술의 방향.”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http://ebook.culturestat.mcst.go.kr/src/viewer/main.php?host=main&site=20150915_091531_1&category=0&page=0&pagenum=0 (검색일 2016.9.30)
- 네이버 사전 dic.naver.com
- 문화체육관광부 동향 연구보고서, 문화향수 실태조사(2000년~2014년)